

[바둑]

반상 '노장들의 반란'

조훈현·조치훈 등 한·중·일 대표 50대 기사들

통산 최다대국 등 체력 열세 딛고 노익장 과시



〈조훈현 9단〉

바둑은 2~5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프로기사들이 40대가 되면 흔히들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늙은 소가 길을 안다"고 했던가. 최근 조훈현(55), 조치훈(52), 고바야시 고이치(56), 네웨이핑(56) 등 한·중·일을 대표하는 50대 프로기사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체력적인 부담을 느껴면서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조훈현 9단은 지난 1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강동윤 8단을 223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리그 2승3패를 올렸다.

조훈현은 이 대회 시작부터 2연패를 당해

결승 진출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는데, 결승 후보였던 강동윤을 잡으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조훈현은 세계 최초로 2천500국을 달성했다. 지난 10일 조훈현은 한국바둑리그에서 맞붙은 이영구와의 대결로 2천500국을 채웠다. 한국보다 20여년 앞서 프로 제도를 만든 일본에서조차 아무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다.

일본의 최다대국 1위는 린하이핑 9단이 보유하고 있는 2천144국이다.

조훈현은 통산 최다승(1천770승), 통산 최다 타이틀 획득(157회), 최연소 입단(9세) 등 수많은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조훈현은 "맘 같아선 5천국까지 채우고 싶다"고 변함

없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치훈 9단도 2천국을 달성했다. 조치훈은 아함동산배에서 장쉬와 대결해 2천대국을 돌파했다. 통산 2천국은 일본에서 2004년 린하이핑이 처음 달성한 뒤 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조훈현은 50대 중반의 노장으로서 생애 통산 승률이 70%를 넘기고 있는 것도 경이적인 기록이다. 린하이핑은 이미 60세가 넘어 조치훈이 수년 내 최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네웨이핑 9단도 최근 견재함을 과시했다. 네웨이핑은 1980년대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당시 세계 제일이라고 자처하던 일본의 강자들을 연파하며 '철의 수문장'이란



〈고바야시 9단〉

별호를 얻은 중국 바둑 영웅이다.

네웨이핑은 지난 11일 인터넷 타이퐁에서 열린 한·중 슈퍼대결 3판에서 조훈현과 맞대결을 펼치며 녹슬지 않는 실력을 뽐냈다. 결과는 조훈현에게 150수만에 불계패를 당했지만 매서운 기세는 여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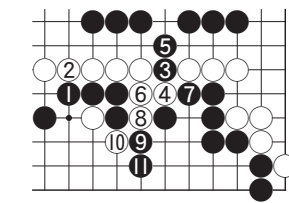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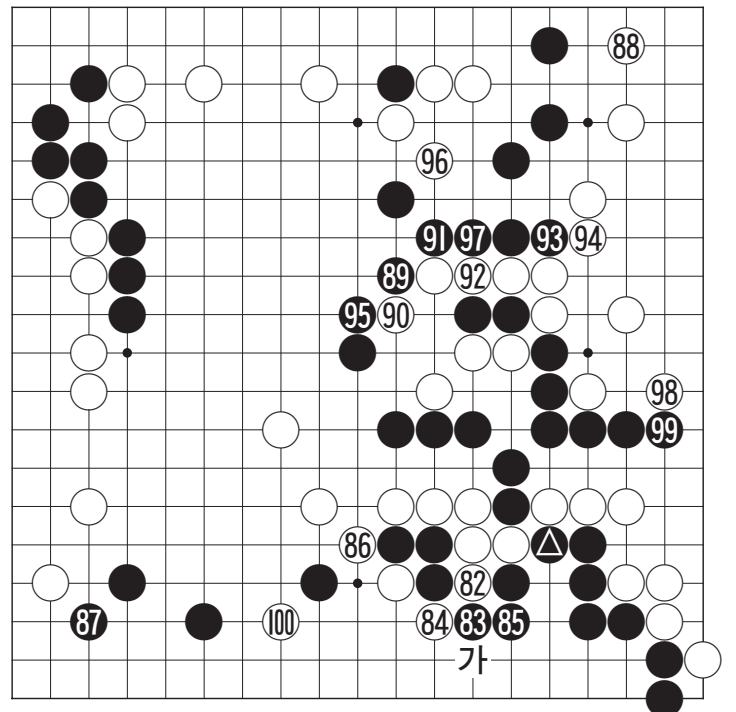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9단도 제13회 삼성화재 세계바둑오픈 와일드카드로 선정돼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얼굴을 알린다.

고바야시는 일본 기도상 최우수기사상 7회, 슈사이상 7회를 수상한 일본 바둑의 대명사이다. 일본은 국가 시드 2장을 제외하고 이 대회 예선전에서 모두 탈락해 고바야시 고이치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빠이픈 흥분의 대가
개인전 준결승 1국 6보 (82~100)
白 박광주 5단 黑 이상의 5단 (광주시청)
(포스코)



〈참고도〉

전보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 ▲로 끊기 전에 '참고도'의 흑 1을 선택한 다음 3으로 깨웠더라면 여기에서 바둑이 끝날 뻔했다.

이 교환이 있다면 백이 8로 찌더라도 흑 9로 막는 수가 성립한다. 11까지 흑은 아무 피해도 없이 오른쪽 흑 대마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실전은 82로 찌르는 수가 성립해 백이 천만다행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 거기다가 흥분한 이상의 5단

이 흑 83으로 막는 대실수까지 해 주고 있다. 이 수로도 그냥 85로 놓아 86으로 흑 석점을 따내지 못하게 해야했던 것이다. 흑 85도 '가'로 내려설 곳.

이상의 5단은 경우는 귀수를 성공시키고도 흥분에 휩싸여 상대를 곤경에서 건져주고 있다. 이제는 백이 흑 석점을 따낸 것이 커서 우편의 손실을 거의 보충하고 있다.또 상변의 흑이 없다는 것도 백에게는 즐거움이다.

백 88이 흑의 근거를 뺏으며 공격을 엿보는 큰 곳이었으며 박광주 5단은 96까지를 선택한 다음 100으로 쳐들어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중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대학에 '마인드 스포츠' 학과 생긴다

〈바둑·체스 등 두뇌 경기〉

강릉 영동대 세계 첫 개설
40명 정원, 2년제로 운영

바둑, 체스, 브리지, 체커 종목의 세계 챔피언을 뽑는 '제1회 월드 마인드 게임즈(10월3~18일)'를 앞두고 국내 대학에도 '마인드스포츠학과'가 생긴다.

국제적으로 마인드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열기가 캠퍼스에도 상륙한 것이다.

강릉 영동대는 22일 "40명 정원의 2년제 '마인드스포츠학과'를 창설, 2009학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마인드스포츠 전공학과를 개설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학과는 마인드스포츠 분야 선수와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학문적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마인드스포츠란 바둑, 체스, 브리지, 체커 등 두뇌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를 말한다. 체스는 세계적으로 무려 158개, 브리지도 103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다. 바둑과 체커 가입국도 각각 70개에 육박한다.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1회 월드 마인드스포츠 게임즈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는 중국 장기를 포함한 5개 종목에 무려 150개국 3천여명의 선수가 올림픽 방식으로 겨루는 IOC공인 행사이다.

또 아시안게임에선 2006년 도하대회 때 체스가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데 이어 2010년 광저우 대회에도 체스와 바둑이 나란히 정식종목으로 참



국내 대학에 '마인드 스포츠 학과'가 생기는 등 두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제1회 회장배 전국 어린이 초청 체스대회 모습. (사이버로 제공)

가한다. 마인드스포츠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다. 그동안 대법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바둑학과를 개설하는 등 이 분야 학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모스크바 대학 체육학과엔 체스 전공이 있다. 대만에서도 내년 9월 바둑학과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강릉 영동대 마인드스포츠학과 창설을 주도한

현인숙 대한바둑협회 이사는 "지도자 양성에 최대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면서 "미디어 및 온라인 업체 등과 제휴를 통해 산학(産學)연계 시스템으로 관련산업 진흥은 물론 학생 취업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 이사장은 프로기사 서능욱 9단의 부인으로 현재 대한체스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조혜연, 입단 11년만에 8단 승단

조혜연이 '얕아서도 삼라만상의 변화를 훤히 내다볼 수 있다'는 좌조(坐照) 칭호가 주어지는 8단에 올랐다. 22일 한국기원은 "지난달 24일 벌어진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 1회전에서 배유진 2단에 게 승리한 조혜연을 입단 11년 만에 8단으로 승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입단한 조혜연은 김원

7단 문하로 2003년 제9기 프로야류 국수전과 제5기 여류명인전, 2005년 제10기 프로야류국수전에서 우승했다. 또 2005년 바둑대상 여자기사상을 수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밖에도 이용찬이 5단, 이원도가 2단에 오르는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 (062)220-0551	(주)성은라과플러스광주본부 광산구 쌍암동 첨단 오션스파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기능제품, 초특가 고품격 여직원 및 주부시원 수시모집 ☎(011)671-1532	한국종합철물 서구 대림동 신업동재우동본D-15동107호 일반철물, 공구, 청소용품, 수도용품 대표 이창민 ☎(062)603-4936	여수아나고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 월계교회 먹지골목 분장어구이전문 자연산100% 대표 김영철 ☎(062)973-2510	골든공인중개사 광산구 월계동 두산1차상가 105호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 임대수시모집 대표 노현의 ☎(062)973-0461	하늘먹은육협소 북구 용봉동 미래도 모아@입구 육협소요리전문점(수육, 전골, 탕, 특선 : 추이탕) 대표 이상수 ☎(062)523-9665	
사평다슬기 동구 금남로3가 제일은행 뒤편 다슬기백반, 다슬기수제비, 다슬기추어탕 대표 박현옥 ☎(062)233-1919	북경반점 북구 두암동 청이맨션앞 관악구 맞은편 정통중화요리전문점 한식류, 면류, 요리류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266-6687	은유약국 북구 오치동 일곡B/D 1층 성실하고 친절한 약국 대표 박수경 ☎(062)251-3388	광주개인택시매대상사 LPG중고차매입·매도상담 폐차대행 부동산 중개전문 본촌동 ☎(062)571-0764 신안동 ☎(062)525-7989	김가네(협단산월점) 광산구 월계동 부영@114동건너 즉석김밥전문점 도시락단체주문 포장환영 ☎(062)974-0029	김성욱한의원 남구 서동 KBC방송국건너 대성교회거리 비염, 성정클리닉, 교통사고, 추나요법, 화병 원장 김성욱 ☎(062)675-7510	광희내 서구 농성동 삼목회관앞 생선구이, 생선조림전문 생고기특식전문 맞춤형식당운영 ☎(062)352-8778
농협중앙회호남급식합참지점 광산구 쌍암동 삼목합참중앙상가1층내 대표 전희국 ☎(062)973-1166	허브누리 광산구 쌍암동 첨단 오션스파라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아로마테라피, 취미반 창업반, 자격증반 수시모집 ☎(062)972-7710	매운갈비점&묵은지삼겹살 북구 오치동 삼익2차@입구 단체손님 예약환영 ☎(062)269-2929	고영우&박미소댄스스포츠스쿨 동구 학동 범무청앞 영동빌딩303호 댄스스포츠 회원수시모집 ☎(062)526-8046	마인레스트호프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근처 차, 식사, 주류 ☎(062)974-0514	토방(도토리음식전문점) 광산구 신창동 부영3차 맞은편 코스요리 4인기준 A: 목우침+생선구이+생선+수제비 B: 목우침+빈대떡+목재탕(2인)+사골탕(2인) ☎(062)962-5877	한국회관 북구 운암동 국민은행앞 계모임, 피로연, 동창회, 회갑, 돌잔치 대형주차장 동시주차100대 ☎(062)526-2571
신촌식육식당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덕산@옆 생고기, 생삼겹, 생목살, 고추장불고기, 설렁탕, 비빔밥, 생고기, 생닭, 단면 등 단체예약 손님환영 ☎(062)266-7904	경진기업(주) 북구 학화동 2순환도로 다리옆 H-3P내충격수도관, IP면이음식, 멀티터치 이형관소프트웨어수련, 관세회기, 수도미터기 ☎(062)262-2221	자라봉국밥 북구 용봉동 회암빌딩 뒤편 자라봉국밥, 순대, 모듬, 마창전골 ☎(062)573-3311	동원철학원 남구 빙림동 봉선초교옆 사주명리, 풍수지리, 종합택일 수강생맞춤지도 남구인 파워용사 특별우대 ☎(062)433-2555	행복이용원 서구 화정동 대주@후문 옆주변선 정문앞 1급보법업소, 기술본부 대표 박홍수 ☎(010)2626-9225	B&A인테리어 남구 주월동 구대동고 건너 백운주유소옆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사, 토달인테리어, 벽지, 장판, 페코팅, 욕실공사 ☎(062)653-0712	토마토화실 서구 쌍촌동 신천힐탑 삼가내 화가를 꿈꾸는 아이들 대표 이현정 ☎(062)375-5062